정동영 탈당·야당 분열 "文 책임" 朴·李 협공

■ 새정치 전대 신당 후폭풍은

문 "대표되면 나부터 희생…친노-비노 프레임 벗어날 것"

박 "'박지원 바람' 전북지나 충청·수도권서 대세 형성할 것"

이 "계파·지역주의 할거로 분열 초래…세대교체 이루어야"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대표 경선 구도가 정동영 전 상임고문의 탈당과 신당 합류라는 변수를 만나 크게 출렁이고 있다.

특히 정 전 고문의 탈당의 후폭풍으로 새정치연합 권리당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는 등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정 전 고문의 탈당으로 친노(친 노무현) 진영의 '분열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 진영에서는 혁신과 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12일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합동 간담회'에서 "저는 정치를 바꾸자는 마음 하나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다. 변화에 대한 의지가 다른 분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가 대표가 돼 친노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의 과제인 '친노와 비노 프래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주자였지만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모든 성과를 안고, 본선 경쟁력을 최대한 높여 본선에 나갔다"며 "대선 후보가 당 대표가 돼 진두지휘하면 결집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에 맞서 박지원 후보 진영에서는 정 전 고문의 탈당 후폭풍으로 친노 패권주의를 경계하는 당심이 집결하고 있다며 고무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에 이어 전북에서도 '박지원 바람'이 불고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충청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면서 대세를 형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대전시당에서의 정견 발표를 통해 "당 대표도 하고 대권 후보도 하겠다. 이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며 "당장 문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손학규 전 대표 , 김두관 전 의원 등이 협조하겠는가. 정동영 전 고문이 탈당한 것처럼 우리 당은 '떠나가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어 "독점하면 깨지는 것이다, 정동영 전 고문도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나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 후보까지 역임한 분이 탈당한 것은 유감이며 아쉽다"며 "정동영 전 고문의 탈당은 계파 싸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 진영에서도 정 전 고문의 탈당 여파가 박지원·문재인 후보의 '빅 2'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서구갑과 서구을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정견발표에서 나선 "우리 속에 든 '골병'을 걷어내야 한다, 계파주의와 지역할거주의로 인한 '분열'"이라며 박지원·문재인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우리는 분열을 넘어서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로운 단결과 통합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며 "계파와 지역할거 구도를 뛰어넘는 세대교체를 해야 하며 그 길이 바로 정권교체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국민모임 서울 대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새로운 정치세력,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모임' 서울서 첫 대규모 토론회

시민사회·학계 등 재야인사들 창당작업 본격 시동

시민사회와 학계 등 재야 진보인사로 구성된 '국민모임'이 12일 첫 대규모 토론회를 하고 신당 창당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민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새로운 정치세력,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1차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신당의 필요성과 지향점을 소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새정치연합을 겨냥해 "여당 독주를 막아 국민 생존권을 지킬 의지와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면서 "여당 2중대로 전락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신당의 정체성을 "비(非)중도 진보정당"으로 규정한 뒤 "과거 정치사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중도 실험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새정치연합의 노선 혼란을 비판했다.

국민모임은 이날 정동영 전 의원의 합류 선언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들뜬 분위기였다.

국민모임은 공식 논평을 내고 "정 전 의원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밀알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모임은 14일 운영위를 열어 구체적인 신당추진위 구성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영란법' 2월국회 처리

여야 원내대표 합의 불구

법사위 보고서 작성 안돼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배석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2월로 처리를 미룬 이유에 대해 "김영란법은 법사위에 넘어오지 않았고 숙려 기간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포함하려 했으나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의 입법 방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여야가 이날 "제정안 우선 처리"를 약속하긴 했지만 '수사'에 그친 채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 여야 합의의 방점은 2월로 법 처리를 넘긴 것"이라며 "아마 손질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무원연금특위 공식 출범

특위 위원장에 새누리 주호영 의원

대타협기구 성격 놓고 여야 신경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여당 간사에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에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선임 직후 "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재정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개혁 기반을 심사해 처리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을 확보하되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게 연금 제도를 개선해 국가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특위와 함께 '투트랙'으로 운영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성격 등을 놓고 엇갈린 견해를 보여 진통을 예고했다.

강기정 의원은 주 위원장이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가장 좋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대타협기구 무력화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두고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학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면 당연히 사학연금도 바뀌는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사학연금 개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주 위원장의 발언은) 대타협기구에서 빨리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한다"며 "대타협기구에 이해당사자가 다 들어갔고 전문가들도 들어간 만큼 시간이 짧지만,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도 여당 의원들은 "훌륭하고 용감한 개혁 필요"(강석훈), "지속가능한 연금체계"(강은희) 등을 강조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불가피한 일인지 따져보겠다"(홍종학)거나 "노후소득 보장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김용익)고 말하는 등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하중 새정치 법률위원장

광주 서을 보선 출마 선언

김하중(55)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법률위원장이 12일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없고 가난한 을(乙)을 위해 갑(甲)의 횡포를 막아 내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광주의 정치 일번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서구을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자존심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면서 "다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인사에게 공천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당의 법률위원장으로서 계파주의로 해이해진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당내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면서 "옛 민주당을 재건해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한 김 위원장은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검찰청 공안연구관, 수원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안 복합리조트 사업부지 매각 공고

Ⅰ 개 요

① 매각대상자산(이하 "각 매각대상자산")
가)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산8 외 21필지 281,517.0㎡(이하 "노대도")
나)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치리 844-2 외 54필지 364,977.8㎡(이하 "상수치도")
다)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읍운리 산269 외 102필지 814,160.0㎡(이하 "상사치도")
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425-7 외 406필지 1,760,109.5㎡(이하 "가리치역")
② 자산매각방법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각 매각대상자산 별 매각
③ 기타주요사항
- 매각대상자산 중 (라)가리치역은 129개의 세부 분할매각단위 별로 매각할 예정이며, 각 매각대상자산 별 세부 필지 내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조 가능하며, 서남개발㈜에 상시 비치할 예정임
- **단독입찰인 경우에도 최저매각금액 이상으로 인수희망금액을 기재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최저매각금액 이상으로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임**
- 낙찰자는 각 매각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단, 신탁되어 있는 각 매각대상자산은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일에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입찰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면제하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각서(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제된 입찰보증금 납입을 확약함) 입찰 시 제출 필요
- 본 매각에서는 인수의향서 제출 절차는 없음

Ⅱ 매각 진행 절차

① 입찰 진행
- 입 찰 일 : 2015년 1월 27일 (화) 9시 ~ 16시 (이하 대한민국표준시)
- 입찰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제출은 불가함)
- 입찰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한강로 2가) LS용산타워 5층 삼일회계법인 Deal 2본부 및 전라남도 목포시 원평서로 42(상동 1148-1) 초원오피스텔 811호 서남개발㈜ 중 선택 가능
- 입찰서류 : 신안 복합리조트 사업부지 매각 입찰안내서의 별첨1~~별첨7
- 입찰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필요 (입찰서류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및 서남개발㈜에 상시 비치함)
② 낙찰자 선정 등 상세한 내용은 재무자문사를 통해 개별 통보 예정임
③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재무자문사 및 매도인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각 매각대상자산에 대한 제한권리(가처분, (가)압류, 소송, 임대차, 유치권, 체납처분, 민원사항, 제한물권, 미납 부담금/세금, 기타) 등은 매수자가 인지하고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며, 이를 이유로 낙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일 까지 각 매각대상자산에 제한권리 설정 등 소유권이전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가 추가로 설정된 경우에는 매도인 책임으로 정리하되, 미정리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기납부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매수자는 매매계약체결 이후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물건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매도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신탁계약해지 비용 등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 관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함
- 입찰자명 및 자산양수도계약의 계약자명은 동일하여야 하며, 변경이 불가능함
- 낙찰자 선정 후 매도인 측 감정평가금액 비율에 따라 낙찰금액을 안분하여 필지 별 매매금액을 산정할 예정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자 측에서 별도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매수자는 매각대상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 임차인 등)의 정리 및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하며, 매도인이 수령한 기납부 임차료는 매도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각 매각대상자산 중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건물 매매대금의 10%)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인수자가 부담함
- 매매계약은 낙찰자 선정 통보 후 10영업일 이내에 체결할 예정임
- 매매계약 시 계약금 10%를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지급 기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임. 단, 낙찰금액에 따라 그 기일은 변동될 수 있음

Ⅳ 기 타

- **본 건 매각에서는 단독입찰인 경우에도 매각이 진행되며, 예가(최저매각금액)는 비공개로 진행됨.**
- 농지에 대한 낙찰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납입기일 까지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소유권 취득 및 처분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각 매각대상자산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매도인 및 삼일회계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 매각대상자산에 임대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 사항(관련 법령 포함)은 입찰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민원사항을 포함한 상기 사항에 대해 매수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인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매각대상자산 상의 존재하는 건축물과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 사항은 사전에 입찰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매수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인 및 삼일회계법인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부산저축은행, (주)부산2저축은행,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주)대전저축은행, (주)전주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 등") 등 5개 저축은행의 파산재단 및 (유)지도개발공사, 농업회사법인 대광㈜, 농업회사법인 상운(유), 농업회사법인 에스제이앤피티에스(유), (주)비앤랜드개발, (주)산안월드, (주)서남개발 등 7개 법인이 각 매각대상자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완료일 현재 설정하고 있는 근저당권, 지상권,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보전사항은 매매대금의 잔금지급 완료 후 말소할 예정임
- 입찰자는 매각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 매각공고 내용과 각 매각대상자산의 공부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부내용이 우선함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인수자 선정을 임의로 철회할 권리 및 선정과 관련된 고유의 권한을 가짐. 모든 참가자는 그 결과에 대해 어하한 내용의 손해배상 기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서류를 제출한 잠재적 인수자 가운데 본 거래와 관련하여 입찰의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예비입찰자 등의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행위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정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산저축은행 등의 부실관련자(부산저축은행 등의 주주 및 임직원, 부실채무기업 주주 및 임직원 등) 및 부실관련자의 이해관계인(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및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부실관련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친족지,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은 입찰자격이 없으며, 입찰서류 제출 후 부실관련자 및 부실관련자의 이해관계인으로 밝혀질 경우 입찰서류의 제출, 낙찰자 및 자산양수도계약체결을 무효로 처리 할 예정임
- 제출된 제반 입찰서류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될 수 없음
- 입찰 당일 16시 이후 입찰서류 제출은 무효로 함
-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삼일회계법인 Tel : 02-3781-9303, 02-3781-9731, 02-709-8395 E-mail : joonhjang@samil.com

2015년 1월 13일

재무자문사 삼일회계법인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5년 2월 16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00~1:20 / 야간반 오후 6:00~10:2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10,000원

원서접수 ~ 2015년 1월 16일(금)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 (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5년 3월 2일 개강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혜 택 :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문의할 곳 062)605-1063, 1112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4cm 2매) 1부
:: 혜 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4cm 2매) 1부
:: 혜 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